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89.3% 통과

국민적 경각심 고취와 병행, 현행 선거법 보완, 여론조사제도 법제화 긴요

민혁당 잔재 등부연합 출신 통합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이석기(51)가 복귀군 남침에 대비 이를 군사적으로 영집하고 제2집선을 구축하기 위해 총기 등으로 무장한 세력을 결성, 국가 기간시설 습격파괴, 후방교란 등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을 기도하다가 적발 되었다.

이와 관련, 4일 오후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었다. 비밀투표에 의해 이루어진 표결 내용을 보면, 재적의석 298명 중 289명이 투표에 참가, 258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11명이 기권, 무효표 6표로 나타나 전체 찬성이 89.3% 압도적으로 통과 됐으나 반대.기권. 무효 표수가 31표로 전체 10.7%에 달하는 수가 이석기의 내란음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자는 국회법 제 24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후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활동을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헌법준수 선서의무를 망각하고 폭동반란 및 내란을 목적으로 결성한 반국가적 성격이 명백한 단체의 비밀화합에서 애국가 대신 '적기(赤旗歌)'를 부르고 복귀군 남침을 영접 호응하여 내란 및 군사반란을 획책, 남침적화 폭력혁명 추구(走句)를 자처했다는 것은 법 이전에 국민적 도리와 인간적 양심에 반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석기내란음모'와 이에 동조하는 31표 같은 현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근본원인은 복귀군 대남전략상 '진보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일시적 동맹(동일전선)군으로 이용하고 있는 청년학생과 지식인, 양심적이라 탈을 쓴 사이비 종교인들이 갑언이설과 꾀변에 현혹당한 우중(愚衆)을 조직적 화

합과 세뇌로 의식화 하면서 반국가세력으로 성장한 데 있다.

특히 1980년대 초 '민주화' 열풍에 편승해 무성해 성장한 김일성 한반도적화 주체사상자들이 우리 국가안보와 사회안정방안 반공태세를 무력화 시키면서 사회전반이 용공화(容共化)되어 반정부부쟁과 반체제활동가를 영웅처럼 떠받드는 기현상이 만연함으로써 반미자주화(미군철수), 민생민주(노동자정권수립, 국가보안법폐지), 민족평화통일(연방제적화통일) 구호가 범람, 복고 노동당 및 지하당 지도하에 폭력적화혁명세력이 확산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연좌제폐지(1981.3), 사회안전법 및 보안감호제 폐지(1989.5)에 이어 전향제도 폐지(1988.7)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로 우리사회를 강력하게 떠받치던 반공태세가 무장해제 되면서 반정부반체제 용공 폭력세력의 온상으로 변했다.

이는 김대중이 김정일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공안통치 종식, 반민권 한총련 등 민간 통일운동단체 활동보장과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 복귀 평화협정체결, 주한 미군철수, 한·미·일 군사공조와 합동군사훈련폐지, 미전향장기수

무조건 석방, 상호주의 포기" 등을 고스란히 받아들여려고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은 대화의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라는 구실과 명분으로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정치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간기부법개정 공안통치 완화 ▲고정간접 석방 및 한총련 등 이적단체 관련자 수배해제 ▲미전향장기수 63명 무조건 복송 ▲국가보안법 개·폐 착수 ▲Team Spirit 훈련 중단 등 김정일 요구 충족에 안간힘을 썼다.

김대중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이석기 같은 악질적 종북세력을 편법으로 사면 복권, 수처에 걸쳐 방북을 허가하고 피선거권을 회복시켜 국회에 입성할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석기는 이에 대비 2004년부터 정계침투 교두보로 여론조사 및 정치컨설팅업체 CN리서치 설립, 2005년 CN&P로 상호변경, 2010년 사회동향연구소(CNP)설립 운영, 19대 총선 야권후보단일화경선 및 비례대표선출에 여론조작 및 SNS 모바일 부정선거 물의로 대표를 사임, STI(대표 조양원)로 상호를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혁당 등부연합 지하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무명의 이석기가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에서 1위를 함으로서 세인의 주목을 끌고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비례대표후보 2번(1번 윤금순 사퇴)으로 금배지를 달고 국회를 혁명의 거점으로 삼게 되었다.

이석기 같은 악질적 종북 반역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복귀의 집요한 대남적화혁명투쟁, 안보태세 및 반공의식의 약화 와해, 진보와 양심의 탈을 쓴 종북반역세력의 확산 등 우리사회의 허술함, 여야정치권의 몰이성 몰지각의 탓도 있지만, 1차적으로 선거법의 허점 등 제도적 미비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피선거권(16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19조) 2항 수형자 조항에 '반국가이적단체 전력자배제' 한 구절만 추가하든가 정당후보자추천(47조) 및 후보자 등록(49조) 기준을 강화하면 종북 반역세력의 공직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57조 2)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 할 수 있는 여론조사업체의 자격과 여론조사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108조)에 대한 정교한 통제와 감독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1차적인 보완대책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후보경선과 관련 무법 무인허 무등록 무신고 등 법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참관할 무기준 무자격 무감독 상태에 방치된 여론조사업체 정비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이석기가 통일당 의석을 단숨에 13석으로 만든 것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도, 이명박-박근혜 후보경선도 [여론조사비법]에 의했다는 사실에 비춰 여론조사업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제2, 제3, 제4의 이석기는 언제라도 나타날 수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됐지만 법률적 제도적 장치만 확실하게 정비 보완하면 이석기를 비롯하여 이석기 내란음모에 동조(??), 지지한 31표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온갖 국가기밀을 수집, 적에게 제공하거나 내란 및 군사반란에 악용하는 등 국가존립체제를 위협하는 사태만은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 백승목 본지 자문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교연, 몽골에서 사이비이단 대처 세미나

몽골 현지 목회자 200명 선교사 20명 참석



명이 참석하게 된다.

몽골 게르교회(성전) 건축위해, 한교연 - CBS 선교협약 체결

한편 한국교회연합회는 지난 8월 21일 CBS기독교방송(사장 이재천)과 몽골 게르교회(성전) 건축을 위한 선교협약을 체결했다. 한교연과 CBS기독교방송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게르교회를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한교연은 게르교회 건축을 위한 제반 준비와 시행 관리를, CBS는 '미션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에 게르교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취재, 제작, 편성하여 방영함으로써 방송을 통해 건축비를 모금하는 일을 맡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한교연은 CBS기독교방송의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지원(몽골 현지 취재를 위한 안내 및 차량지원)과 CBS의 모금 등을 통해 1개 이상의 게르교회 건축의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CBS기독교방송은 몽골 현지를 취재해 게르교회 건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모금방송을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석기의 '내란 음모'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성명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인 '내란 음모' 혐의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밀 모임을 가지고 유사시 국가기관 파괴를 노리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 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이미 드러난 녹취록에 대해 '조작'이나 '날조'나 하여 이석기를 옹호하는 자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석기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과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고 한 것과 북한 문제는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종북(從北) 노선의 핵심에 있었던 자이고, 통합진보당에도 이 같은 발언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밝힌 이석기의 녹취록은 종북주의(從北主義)의 실체로 그대로 드러난 증거라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실지자는 종교개혁 이래 종북주의자들, 단체 그리고 정당 등이 절대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석기는 지난 5월 초 서울에서 열린 경기도정부 내부 회의에서 "진시를 대비해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확보해 무장하라"는 등의 무장봉기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의 김기희·김재현 등 130여 명이 모인 경기도정부 연합 모임에서 북한군 군가인 '적기(赤旗歌)'를 합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 경기도정부 연합 행동강령에는 "남한 내 진보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한다. 결정적 시기가 되면 무장봉기를 통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의 녹취록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서 이석기는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우리는 다 반역이다"라고 하였으며, 모임 참석자들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진시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 통상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결론은 각자 소관 업무를 독촉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이석기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전략인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에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내란 음모' 행태인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전교조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적극 지지하는 세력이다. 전교조 역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묻고 싶다.

과거 종북 노선이 있을 때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와 여야 지도부에 통합진보당 해체를 요청했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전교조 역시 해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대한 애국적 역사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과 불안을 외면한 채 통합진보당은 일정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세력을 확장해 왔지만, 통합진보당 RO 회합의 녹취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활동이 이미 반국가적이며,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즉각적인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수주의자들의 종북적결과 반공정신의 멸원이 담겨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도 엄중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만일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본분 색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향후 대책도 마련하여 이러한 모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정당은 정치직 외임을 가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고 계속된 외압설이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간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3년 8월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총회 제61회 정기총회 공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총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총회장													
	부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시찰부장	시찰부부장	선교부장	선교부부장	선교부부장
지태영 목사 한빛전원교회	이재성 목사 신원예담교회	박종선 장로 동천교회	김동민 목사 창대교회	김일수 목사 동신교회	김인근 장로 송덕교회	최명철 장로 성산교회	엄광일 목사 한사랑교회	박점수 장로 인천교회	손종필 목사 늘푸른교회	김영대 목사 영암교회	김은태 장로 동천교회		
총장													
	교육부장		교육부부장		고시부장	재단부장	재단부부장	재단국장					
노활수(D.R.E) 박사	강철 목사 대천교회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지태일 목사 새빛중앙교회	추영조 장로 신원예담교회	한명학 장로 대천교회	윤정현 목사 해암교회							

총회 (순장)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주소: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TEL: 02)845-7711 Fax: 02)844-7711
H-page: 041)853-9966, E-mail: sb0691@hanmail.net

제61회 정기총회 일정

날자: 2013. 9. 24(일) - 25(일)까지 시간: 오전 11시부터 -
장소: 신원예담교회 서울시 관악구 신원로 3길 59-9 (8/2) (구 신원1동 1612-7)
문의: 02)859-3671 010-8268-0091, 010-5468-6574(지저스타임즈 본사)

가정같은교회 ⇄ 교회같은교회

전원중앙교회

조강수 목사, 성소기도원 수양관에서 집회 열어

《자나 깨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라》

인천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웨신총회 서기)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들리 소재 성소기도원 수양관(원장 박정연 목사)에서 지난 달 12일-15일(목) 저녁까지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5만 평의 넓은 공간에 성소기도원 수양관, 대성전이 있고 주변에는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야외휴게소, 사슴농장, 사육관, 운동장, 야외기도처, 등 그 외 많은 시설들이 한 쪽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강사로 나선 조강수 목사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로 매 시간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달구어진 화덕처럼 성도들은 성령충만을 받았으며 은혜의 강수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았다.

성회 마지막 날 조강수 목사는 마8:23-27절을 중심으로 “파도를 잡잡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권면했다.

지금은 잠잠한 것 같지만, 언제나 인생에 파도가 밀려오고 거대한 풍랑이 밀려올지 아무도 모른다면 그 때부터 우리는 철저한 신앙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



지하고 살면 어떠한 풍랑에도 실패는 없다고 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간다고 우리는 자나 깨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며 각인시켰다.

이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 깨닫는 역사로 양팔을 들어 올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충만이 임하고 이곳저곳에서 울음이 터지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 가운데 3박 4일 간의 집회를 마쳤다.

한교연, 임원 조직 변경과 정관개정안 심의해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지난 9월 3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2-4차 임원



한교연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회를 개최하고 일부 임원 조직을 변경하고 정관개정안을 심의했다.

43명(출석 13명 위임 30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예상 개혁(종로측) 총회가 보

내온 대표자 변경 건을 다뤄 공동회장 장효근 목사를 임종학 목사교체하고 인권위원장 김병호 목사도 해 교단의 요청에 따라 교체하기로 했다. 예상 개혁(종로측) 총회에 따르면 전 총회장 장효근 목사

와 김병호 목사는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받아들인 한기총 소속의 예상 개혁측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상 개혁측이 요청한 공동회장 오연석 목사를 이동희 목사, 공동부회장 이동희 목사를 함

장, 법인이사까지 포함하기로 했으며, 임원회 구성에 법인이사와 감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법인이사장을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당연직 총회총대의 범위도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에서 특별위원장, 법인이사, 법인감사까지 포함해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한 법인이사에 손달익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장종현 목사(백석대 설립자), 정서영 목사(예장 합동개혁 총회장) 등 9

WCC부산총회 철회전에 관한 공개질의서(2)

예수님 외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종교다원주의 노선을



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추구하는 WCC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교회에 있어서 이 보다 문

제시 되는 노선과 단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WCC 총회를 부산으로 유치하고 개최하려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함이 있기에 WCC부산총회 철회 및 대표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통해서 문제시 되는 의사를 전했으나 반응이 없기에 2013년 8월 2일 1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없기에 사안의 중대함을 따라서 2차 공개질의서를 행위로서 교회에 있어서 이 보다 문

같이 집회를 통해 2차 공개질의서(첨부한 파일 참조)를 밝히고자 한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2013년 9월 6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WCC반대 대책위원회 일동, WCC부산총회 철회 및 대표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안내 / 일시/2013년 9월 6일 14:00-16:00 장소/서울 강동구 전철 5호선 명일역 4번 출구 앞 / 집회 명 / WCC부산총회 철회 및 김삼환 대표회장 사퇴 촉구 / 주최/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WCC 대책 위원회

“제자교회 한서노회로” 정삼지 목사 ‘면직’ 양측 반발

총회 수습위, 제자교회 소속 ‘한서노회’로 결정



정삼지 목사

을 부채질했던 노회 문제가 9월 교단 총회에서 일단락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인다. 예상합동 총회 ‘제자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위원장 이영신 목사, 이하 수습위원회)가 3일 오후 제자교회의 소속을 ‘한서노회’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교회 정관에 대한 법원의 판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삼지 목사와 지지측은 2011년 8월 7일, 반대 교인들의 출

입을 통제할 채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 소속을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정관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1년 뒤 법원은 “다수 교인들의 참석 및 발언, 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정삼지 목사 측의 정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9월교단총회 주목...

정삼지 목사 ‘면직’ 처분 유호할까

총회 수습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 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수습위가 이번 결의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지측은 지난 3월 3일 법원 결정에 따라 교인총회를 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속을 ‘서한서노회’로 결정했음에도, 수습위원회가 비합리

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수습위원회는 지지측의 교인총회가 당초 소집이 없었고, 목사가 사회를 진행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정 목사를 반대하는 당회 측은 수습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다. 수습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제자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부터 개최될 예상합동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진다. 총회에서 수습위원회 결정이 통과되면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로 확정된다.

‘한서노회’는 지난 해 9월 임시노회에서 정삼지 목사를 교회 재산 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한 바 있어,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정삼지 목사의 지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 창립대회 개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 역사적인 창립대회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지난 9월 2일 오후 1시에 개최되었다. 북한인권회복을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문제로 인식하는 모든 기독교인, 기독교단체가 모여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법 제정, 탈북난민 복송중단, 통일준비, 바른 시국관 교육을 위해 이 단체를 창립했다.

이날 1부 문화행사에는 정영숙 권사(여의도침례교회)가 진행을, 2부는 박순오 목사(서현교회)가 예배를 인도하여 기도예 배회인 장로(예비역군인협의회회장), 김용기 목사(예문교회)가 성경복독(미가

6:6-8), 이종운 목사(서울교회원로)는 “정의 실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3부는 창립총회가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장차남 목사, 이정훈, 최성규 목사가 격려사를, 이종운 목사의 인사, 송기성 목사의 성명서 낭독, 서경석 목사 광고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반 창립총회가 시작되어 3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이날 이종운 서울교회 원로목사를 상임대표로,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 대구서

현교회 박순오 목사, 부산온천교회 안용운 목사를 공동대표로, 서경석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고, 상임교인으로 최기재 목사, 김도빈 목사, 장차남 목사, 정관술 목사, 최성규 목사, 김진홍 목사, 최홍준 목사, 최덕순 목사, 김성호 목사, 임택원 목사, 이훈순 장로, 주선에 교수, 이연호 장로, 김길자 권사를 추대했다. 또 이 단체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각 시군구에 지부를 조직 발표했다.

또한 에스더기도운동, 예비역기독교인회연합회, 한국탈북민정착협의회, 북한교회세우기연합, 기독교사회책임, 북한기독교

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피난처, 북한정의연대, 민족사랑나눔, 이북5도기독교모임 등 20여 단체가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이 단체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의 북한인권운동의 총괄협의체 역할도 겸한다. 그리고 회원단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또 하지 않고 회원단체 지원과 회원단체들이 원하는 일, 시군구 지부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7,80년대에는 남한민주화를 위해 공헌했다면 이제는 북한민주화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의 깃발 하에 실천활동을 독려했다.

조강수목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333 중보기도 운동

할렐루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CBS TV 비전특강을 인도하는 조강수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333중보기도 운동이란?

3. 3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3. 3백명의 기도온 봉사처럼
3. 3분간 합심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운동

■ 동참하는 방법

성도님들의 삶속에 기도가 필요할때 즉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예)○○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자녀가 수술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이름과 본인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 보내주신 문자내용은 전 중보기도 회원에게 문자로 전달 됩니다.
- 문자내용을 받는 즉시 전 중보회원은 3분간 장소구애없이 합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도 할 것입니다.
- 중보기도 신청번호(010-9300-0695)이곳으로 사연을 보내시면 됩니다.
- 중보기도 회비(월5천원) 계좌번호: 농협301011-94-81821 예금주: 영광교회
- 입금하시고 문자주시면 바로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조강수 목사

- 영광교회 당회장
- CBS TV 비전특강 강사
- CTS TV 빛으로소금으로 강사
- 웨신총회 신학교 이사장
- 중보기도 사역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부설) 중보기도사역원

인천 서구 가좌4동 4-24번지 032)575-1654

다니엘서 5장 강해 (12)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일곱 해’의 느부갓네살왕의 징벌은 바벨론과 왕 자신에게 해당되면서 또 한 종말에 있을 큰 바벨론을 계시한다. 7년 환란가운데서 배도하여 바벨론으로 멸망할 수도 있고, 깨닫는 자는 음녀인 큰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7년 환란 중에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런 사랑의 7년 환란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환란’을 하나님의 ‘벌’로 알아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 5장에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역사 속에서도 깨닫지 못할 때는 징벌로써 돌이키게 하신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계속 대적하고 망령되게 행동할 때는 거부한 자에게는 사랑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이다. 그에게는 공의의 심판만 있는 것이다.

히브리스 6장에 나온다. 우리가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데 나아가야 된다.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맞고 성령을 받고 능력과 은사를 다 맞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타락을 하면 다시 회개 할 수 없는 것이다. 9절에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이 된다.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징벌의 비다. 세상으로 타락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체형했는데 신령한 은혜를 맞은 자가 타락하면 타락한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채찍과 징벌의 비 같은 역사로 때려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합당한 채소 같아서 복을 받는다. 그러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 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되어 불사름으로 끝나고 만다. 공의의 심판으로 끝나고 만다.

1. 4장에서 5장으로 계시 연속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왕을 징벌을 통해 낮추시고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셨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은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심을 깨닫고 그의 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왕이 돌이키게 된 이후에 종전보다 더 많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왕은 언제 왕위에 등극했는지 기록도 되지 않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망령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결

국 바벨론은 멸망되어 메대 파사로 갈라지고 만다.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바벨론의 종말이요,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저버리면 결국 공의의 심판을 받는 악인의 종말에 대한 계시임을 깨달아야 한다.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을 통해서 돌이키는 역사이고,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되는 벨사살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지는 것이다. 벨사살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쓰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금, 은 기명(2, 3절)을 가져다가 자기의 잔치자리에서 함께한 자들과 같이 술을 담아 마신다. 참으로 가증한 행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한다.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며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릇됨을 계시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짐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우리는 우리자신이 예루살렘 성전, 즉 주님의 교회에서 그릇임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러지는 제물 같은 합당한 것이 담겨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7, 18장에서 음녀가 마시는 술잔에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있다고 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온다.

일곱 대접 공의의 심판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속에, 즉 그릇에 악이 가득한 자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써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이다.

2. 손가락 출현하여 글을 씀
벽에 나타난 글이 아람어인데도 바벨 박사들은 읽지 못한다. 오늘날 성경 진리, 예언 말씀 왜 못 깨닫는가? 예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에 앉힌바 된 자가 천상문화(天上文化), 천상법도(天上法道), 천상환경(天上環境), 천상(天上)의 하나님의 뜻과 이를 이루시는 역사를 알 수 있다. 출애굽기 31장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친수(親手)로 돌 판에 하나님의 심계명을 썼다. 애굽에서 구원해 냈지만 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강박하고 완악한 그들, 즉 돌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 돌에 글을 쓴 것이다.

요 8장 6~8절에 예수님이 친수로 글을 쓰신다.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글을 쓴 것이다. 땅에다 글을 쓰신 것은 ‘땅’은 우리 마음 이고 우리 마음 판에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생각에 성령으로 새긴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회벽에 글을 쓰신 것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어 하나님을 우롱하고 가증하게 악이 짙 찬, 악으로 관영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쓰는 것이다. 너의 죄가 가득차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는 것을 알려준다. 먼저는 심계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다가 그것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도 온전히 섬길 수도 없었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죄를 없이하는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판에 새기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의 편지가 되는 것이다. 주의 말씀에 일치된 심령이 되어 질수록 말씀에 일치된 속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짝 차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사랑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벨사살 왕같이 멸망, 심판으로 나타난다. 벨사살이 안색이 바뀌고 허벅지가 떨리고 팔뚝이 풀리고 글자를 아는 사람을 찾으나 아무도 없다. 그때 태후가 들어와 다니엘을 천거한다.

3.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10절)
태후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준 것을 알고 있기에 다니엘을 추천한다. 벨사살이 벽의 글을 해독하면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하고 예물과 삼급 주겠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삼급과 예물을 거절한다. 왜? 다니엘은 벨사살왕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회벽의 글을 풀어 벨사살에게 알려온 것이 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만 알 수 있으니 그것을 해

석해서 알려주고자 온 것이다. 18절부터 22절까지 4장에서 일어난 선왕에게 있었던 일을 다 고한다. 느부갓네살이 일곱 때의 집승같이 징벌로 바로 세워 그를 더 영화롭게 했다. 왜 이렇게 설명하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일은 벨사살 왕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느 특정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이다.

4.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5:24 이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끊임없는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나 벨사살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도리어 원수로 여기며 망령되어 행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패역 하는 데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았는지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공의의 심판에 의해 벨사살에게 심판의 글이 쓰여진 것이다.

5:25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자는 히브리어는 아니다. 사실 아람어에 근거하고 있으나 아람어라면 바벨론의 박사들이 당연히 읽었을 텐데 아무도 읽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로는 깨달을 수 없는 글됨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아무도 알아 볼 수 없는 글로 써 놓으셨을까요? 이와 같은 예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바로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고 ‘달리다굴’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뜻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별도로 기록하셨다. 그러면 이 달리다굴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알아들었는가? 이 달리다굴은 하늘나라에 속한 언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하늘나라의 통일 어이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회장
본지 상임이사

칼럼

기다려 지는 가을

긴 여름의 폭염은 참기 힘든 시간들이었다. 강렬한 태양의 열기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으며,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식물들은 성장을 촉진시켜 각종 여름 실과를 맺어 신선한 맛을 주었다. 초록의 계절에 마음껏 성장한 나뭇잎과 푸른 풀들은 가을이 오기 전에 힘찬 생명을 자랑하고 있다. 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변하여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푸른 잎들은 자연의 입속함에 고개 숙여 푸른빛을 잃고 붉은 빛 혹은 누런빛으로 낙엽이 되어 자신들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우리 동료 곡에서 가을 노래가 생각난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가다림이 없는 슬픔을 노래한 곡이다. 잎이 지고 나면 다시는 그 일을 초록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속에 가을을 생각해 보자. 기다려지는 가을인가? 삶의 경쟁속에서 마음껏 생명을 자랑하는 푸른 과목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과일을 남기고 가야할 것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한겨레 한민족으로 살 아온 우리의 선조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 나눔이 있었으며 협동 하면서 살아 왔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우리 스스로 한민족을 고수 하지 못하고 다문화 민족이 되었으며, 이해와 나눔보다는 자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명예와 권력과 재물은 인간의 끝없는 욕구인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도구인 것이다. 사탄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세 번의 시험을 하였는데(눅4:6)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사탄이 성경 한 구절을 만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현실 정치를 보면서 왜 이토록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대 대통령의 평가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부정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재물 수재 내용의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낙심 하였다. 물론 대통령의 치적도 많다. 당시의 혼란사회를 평정하게 하고 외채를 바닥에 까지 줄이는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업적도 많다. 대통령의 청빈치 못한 내용을 보면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잘못 된 것만 찾아 조사 한다면 국민 모두의 아픔이며 스스로의 부끄러움인 것이다. 더 이상의 치부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민

족의 나눔과 이해와 용서로 슬기로운 민족정신을 다시 찾아야 한다. 진정한 인간의 삶을 위해 국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 안정된 사회 속에 발전을 기대 한다. 모든 매스컴과 지상보도를 보면 정치를 위해 국민들이 살고 있는 느낌이다. 야당의 쫓박 집회, 장외 투쟁, 천막 행진등은 발전국을 외면한 후진 정권들의 형태이다.

이러한 혼란 정치를 기회로 종북 좌파 세력들은 목숨을 걸고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여·야가 함께 의정을 협의한 내용들을 들어본적이 없는 것 같다. 모든 것이 투쟁 일변도라면 전진이 없는 후퇴뿐이다. 뿐만 있으면 사소한 내용을 가지고 불법이다. 반대 한다.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한심한 작태이며 그들을 선출해준 국민들의 손이 부끄럽다.

국가전복의 틈만 노리고 있는 조직들이 국정 책임자들의 잘못 된 내용들을 찾아내어 국민들의 심정을 파도처럼 움직여 현실정치와 국가를 부인토록 조장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 할 뿐이다.

우리는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을 바란다. 자유와 민주주의 개방만이 아니다. 철저히 법을 준수하는데 있다.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 촛불집회와 장외투쟁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 혼란을 조장시키는 요인으로 강력한 국력으로 조처해야 한다.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좌파 세력을 완전히 종식 시켜야 한다.

국가적으로 지나간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있으면 한다. 년 1회 정도 청와대 초청으로 대통령들의 모임이 있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본인이 재직시하지 못 했던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많은 힘이 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역대 기록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후회와 역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 될 것이다.

긴 여름의 폭우와 폭염은 지루 하였으나, 자연에게는 성장과 축진의 역할을 하였다. 풍성한 수확의 가을은 다가오고 있다. 가을의 문턱에서 한참 초록의 잎들은 서서히 붉은 빛으로 변화 되어 간다. 가을의 불태움과 붉은 단풍을 끝으로 생을 장식하는 자연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도 주님과과의 동행 속에 후회함이 없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기다려지는 가을을 맞이하고 싶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은총 기도원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원장 주은총 목사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콰영민 목사

- ◆ 예정(백석) 인천노회 소속
- ◆ 등불교회 담임
-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원수원장
-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회의 사무국장
- ◆ 세계주영광부흥사회의 대표회장
-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구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 사관학교



콰영민 목사

등불교회 담임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예정(백석) 인천노회 소속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연구원장)
세계주영광부흥사회의 5대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본사 사무국장



김명욱 목사



김재자 목사



윤경호 목사



김경호 목사



김선우 목사



김영중 목사



이창환 목사



콰영민 목사

http://kiea.onmam.com

교재제공 및 학비 없음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소: 충만교회 · 총회신학연구원.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8-7 2층.
문의: (대표)010-2080-0651, (사무국장)010-2008-5072

총회신학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사도영성 신학원 학생모집

이 시대의 사명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사도영성 신학원은 수시로 접수 중...

2학기 개강: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 ◎ 학장: 홍요한 박사
- ◎ 교수과정: 양미상 목사, 교학처장: 홍성익 목사
- ◎ 선교교장: 선년규 장로
- ◎ 선교교 총무: 김동현 간사: 이현숙



학장 홍요한 목사

1. 학교비전 / 교과목 소개

2. 교수소개

학장: 홍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 미국에글랜드대학원 목회학 박사 / 호주시드니 알파크로 시스템, 미국 University of Puritan (한국학))

3. 교수

지왕철 목사 (미국피서레이유니버시티 목회학 박사/한기보협 상임교문)
김장봉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미국CLARMONT대학원목회학 박사)
이효은 목사 (한양대학 / 춘신대학원 석사. 박사)
박경혜 교수 (인양대학원/미국하와이 인터네셔널대학원 기독교상담학박사)
허 석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석사 / 한국경목총회 장)
이갑표 목사 (한영신학대학원 / 대신대학원 석사)
임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전라주호국국기도회 대표 / 예수재단 대표)
임해숙 목사 (한국농화교역자총회 중장목회장)
박용숙 목사 (연세대학원 석사 / ezab.org 이갑원장 / 주성농교회담임)
양기남 목사 (고려대학원 / 본 교교과부장)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대표이사)
홍성익 목사 (미순전환나드사역연구원 학생처장)

사도들의 영성 특징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도영성신학원을 개원하면서 평신도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첫 사명을 살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5-3와 1필지 에스텍스더빌로타워 제11층 1108호
Email: church7@harmail.net · 학장: 010) 7585-1955 02)2625-0982

www.inamhyu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2013년 동여 “넘쳐나는 교회”

전도로 주원하는 백성이 넘쳐나는 교회
기도로 영혼을 얻는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온전으로 성숙한 믿음이 넘쳐나는 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명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움의 전도
7. 능력의 선교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2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3부 주일 오후 2시 30분
주요 예배	1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2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3월 1주 주일 오전 9시 30분
수요 예배	주요 예배	주요 예배	주요 예배
수요 침례 기도회	주요 침례 기도회	주요 침례 기도회	주요 침례 기도회
새벽 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2부 매일 오전 6시	3부 매일 오전 7시

주말예배안내 (오전 11시 20분)

영양(백석)교회	1층 영양부실
유치부(4개)	1층 유치부실
1초등부	2층 1초등부실
2초등부	2층 2초등부실
중등부(1,2,3)	2층 중등부실
고등부(1,2,3)	2층 고등부실
태사(영광)교회	1층 영광부실
이기학교	1층 유치부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드림스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1. 거짓의 편에 선 자들

말씀 : 사도행전 25장 6-7절 찬송 : 358장
약 10여일이 지난 후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이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증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하여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는 진리 편에 선 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담대한 용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편에 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 진리 안에 선 바울

말씀 : 사도행전 25장 8-9절 찬송 : 325장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범죄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용기는 진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바울의 변고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진리와 말씀을 위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 변호하십시오.

3. 로마로 가다

말씀 : 사도행전 25장 10-12절 찬송 : 391장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자신이 불의를 행한 일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량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자신을 내어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리를 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4.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

말씀 : 사도행전 25장 13-22절 찬송 : 428장
바울은 베스도와 같은 정치가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 앞에서 인정받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불신자들에게 존중을 받을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진리와 확신을 삶으로 보여 주고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전해야 합니다.

5. 베스도가 감당할 수 없는 바울

말씀 : 사도행전 25장 23-27절 찬송 : 540장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아그립바는 바울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당대의 총독 및 분봉 왕, 그리고 유대와 로마 정부의 유력한 관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에 담대히 자신에 대한 지혜로운 호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스도가 바울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진실한 성도가 되어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6.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

말씀 : 사도행전 26장 1-3절 찬송 : 543장
바울은 아그립바의 허락 아래 로마와 유대 고위 관리들 앞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는 아그립바가 유대인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그의 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민족을 위하여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결립돌이 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7. 스스로 생각한 열심

말씀 : 사도행전 26장 4-8절 찬송 : 488장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대로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는 종교와 윤리는 결코 는 훌륭해보여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십시오.

8. 잘못된 열심의 결과

말씀 : 사도행전 26장 9-12절 찬송 : 440장
잘못된 열심은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열정은 인생을 죄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진리 안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열정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9.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

말씀 : 사도행전 26장 13-16절 찬송 : 426장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때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분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10. 사명을 주심

말씀 : 사도행전 26장 16-18절 찬송 : 267장
바울의 사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1. 사명에 목숨 걸다

말씀 : 사도행전 26장 19-23절 찬송 : 545장
바울이 전에 가졌던 열정은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이제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의 열정의 원천은 부활하신 주님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진정한 주님과과의 만남을 통하여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 시기를 소망합니다.

12. 이해하지 못하는 베스도

말씀 : 사도행전 26장 24-26절 찬송 : 286장
베스도는 바울의 간절한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모양은 그럴듯해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죽은 자입니다. 복음 증거는 인간의 말과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도 주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13. 거부하는 아그립바 왕

말씀 : 사도행전 26장 27-29절 찬송 : 365장
아그립바 왕은 유대인이므로 바울의 말을 이해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있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증거는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4. 바울의 소망

말씀 : 사도행전 26장 30-32절 찬송 : 286장
바울은 자신의 강한 소망을 피력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소망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심을 간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박사의 "3박자 건강" (48)

식생활 개선법!

"잔 음식보다 신선한 채소로 입맛 돌귀야"
음식을 짜게 먹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 원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금을 줄이려면 잔 말반찬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물론 음식을 염장하는 지혜는 식품보존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냉장고의 보급으로 신선한 식품의 공급이 언제든지 가능한 지금에 와서까지 옛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염장식품은 고혈압뿐 아니라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위암사망률이 높아 평균수명이 낮았던 노르웨이에서는 소금에 절여서 즐겨 먹던 염장어가 원인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병동공업이 발달하면서 염장어의 소비량이 줄어들어 그 결과 위암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된 예가 있다.

아무튼 염장식품의 섭취를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물 없는 식사 못한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국을 좋아한다. 이 국에 제대로 간을 맞추려면 반 숟갈 정도의 소금으로는 어렵었다. 식사 중 섭취하는 많은 양의 국물은 자동적으로 소금의 과잉섭취를 강요하는 셈이 된다. 국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자. 많은 양의 국물은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빈번한 외식과 인스턴트 식품의 과용은 자연히 소금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라면에 함유된 소금의 평균함량이 5g이고 여기에 김치 등을 같이 섭취할 때 대충

10g 정도의 소금을 먹는 셈이 된다.

한편 기후와 식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쪽으로 갈수록 음식이 짜고 매운 이유는 한마디로 기후 탓이다.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여름철에는 식욕이 없어 자극적인 음식(비빔밥, 보신탕 등)을 선호하게 된다. 더위에 축 늘어진 몸과 마음을 억지로라도 깨우자니 음식이 짜고 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두뇌에 이탄바고 유의 식성이 형성되어 이제는 사시사철 짜게 먹는 현상이 되었다.

"에피타이저"라는 음식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겠으나 짠 김치를 선호하는 우리의 전통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상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김치의 섭취량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김치를 먹으려면 짜지 않게 그리고 맛있고 상큼하게 담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운동과 창조적인 정신활동을 통한 심신의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짠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다. 계절에 따른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느끼는 자연 그대로의 상큼한 맛 ... 소금보다 훨씬 강력한 입맛의 자극제가 아닐까.



황성주 박사

담임 엄신형 목사
(직전총회장)

중흥교회

주일예배안내

오전 7시 1부, 1시 2부, 오후 2시, 5시

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전화 : 02)476-7131

담임 박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요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2013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담임 서명범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사 : 전순자, 김경애, 김은자, 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슬초 목사

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새벽 5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치움(A) 319동 1803호 http://ezob.org
☎ 02)414-1191 H.P 011)775-5154 010-4611-3221



서울방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청각장애인지방연합 대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 2층
문의:010)4611-3221



담임 김안식 목사

실만한물가교회

예배안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가는 교회"

주일(부예배) 오전 9:30
주일(주예배) 오전 11:00
주일(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 새벽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민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스타일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담임 허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담임 오상형 목사
(본지성임이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

미래목회포럼 포럼에서 미와 노부오 목사 밝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중국의 동북아공정, 북한의 핵과 개성공단 문제와 탈북과 인권 등 동북아문제가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목사)은 설립10주년을 맞아 '동북아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20차 정기포럼에서 미와 노부오 목사(카바나토체플)는 "동북아 시대와 평화를 위하여 확실히, 일본교회는 과거의 한일 양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야한다. 특히, 전쟁 중에 일본정부가 취한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가혹했다"며 "한일양국의역사의 삶이 있는 증인을 초청해서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순교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30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에 있는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가진포럼에서 한,중,일 3개국 교계 주요지도자들과 중견목회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럼대표 오정호목사는 환영사에서 "한국교회는 동북아지역 협력과 공존공영의 시대를 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한국은 해양과 대륙의 중간에서 교류와 소통의 매개자로, 다양하고 다층적인 국제적 갈등과 경쟁의 완충지대, 선후진 경제의 중간조정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 첫 발표에서 '한국교회와

분단·북한구원과 교회의 협력방안'을 발표한 임창호 목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고신대)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만 약 25,210명이며, 한국이나 제3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중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탈북자는 어림잡아 15만에서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선교와 통일의 예비적 준비를 위해 하나님께서 떠밀어 보내 주신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교회가 60년 이상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해 지속해온 기도응답의 산물이며, 북한선교와 통일을 가시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중국어교회의 현실과 미래전망'을 발표한 유진명 목사(한성중화기독교교회)는 "동북아평화를 위한 선교는 다방면의 협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한 교회나 한 선교단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함께 협력하고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며 하 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동역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현지 교회개혁과 현지인 신학교육 및 사역자 양성을 위해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교회의 현실과 동북아 교회협력방안'을 밝힌 미와 노부오 목사(카바나토체플)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한 한국에서도 우상숭배를 강요했다. 남산의 기슭에 조선선공을 만들고 1촌 1신사"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 전



국에 신사를 건설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그 결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의 가담자라고 해서 박해와 고통을 주었다. 많은 교회와 목사들은 이 제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는 그 결과 한국의 교파가 분열되었다"고 밝혔다.

발제 후 정성진 목사(거룩한빛 광성교회),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유민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등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고명진 목사는 "동북아 지역은 대립과 반목, 빈곤과 전쟁의 역사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 공영과 평화를 구현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교회가 먼저 대립에서 공생으로, 경계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동북아 교회의 협력과 소통이 일어나 더 큰 평화 공동체의 기반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미래목회포럼의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종

교개혁 496주년 기념포럼을 '사회개혁으로 종교개혁을 조명하다'라는 주제로 권오서 목사(춘천감리교회)의 설교,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임희국 교수(장신대), '종교개혁과 한국사회' 김성건 교수(서원대),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갱신' 이상구 교수(고신대) 등이 발제자로 나서며, 패널로는 정종훈 교수(연세대), 이문장 목사(두레교회) 등이 나섰다.

미래목회포럼은 2003년 12개 교단 300여명의 목회자와 33여명의 각계 정책 자문위원들로 구성돼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사회와 교회현안 연구, 모니터링 및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정기포럼과 콘퍼런스 등을 매년 가져 왔다. 정기포럼은 매년 분기별로 열리며 해를 거듭할수록 연료를 더하며 한국교회와 교회의 이사진단, 연합과 일치, 대안 모색 등으로 향후 한국교회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중요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마포구성시화운동 전도대회 열려

성시화운동 헌신예배에 이어 중보기도, 전도훈련 실시

서울 마포구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영수 목사)가 성시화운동의 첫 단계를 올렸다. 마포구성시화운동본부는 1일 신수동성결교회(담임목사 김영수 목사)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성시화운동 헌신예배 및 전도대회를 갖고 성시화운동의 정체성과 전략을 소개 받고, 중보기도특강 전도훈련을 실시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헌신예배는 마포구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정대준 장로가 대표기도를 인도했고, 신수동성결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가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본문으로 '성시화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전 장로는 "성시화운동은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지민에게 전하는 3전운동"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를 위한 기도

운동, 복음전도운동, 사랑의 섬김과 실천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장로는 특히 최근 교과서 동성애 합법 기술 문제와 성적지향, 사상, 종교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의 철회운동을 소개했다.

이어 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와 전 농림부장관 김영진 장로가 격려사를 전했다. 최 목사는 성시화운동 41년만에 서울에 성시화운동 본부가 출범하고 마포구에서 제1회 전 성시화운동 헌신예배와 전도대회가 개최됨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김영진 장로도 마포구성시화운동본부의 첫 사역을 격려하고 성시화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고 세계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헌신예배에서는 김영수 목사와 정대준 장로에게 마포구성시화운동본



부 대표회장장과 공동회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기도특강에서는 최호자 권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민들레중보기도팀장)가 나와 가정과 도시를 살리는 중보 기도사역 간증을 했다.

서울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6일 해오름교회(최낙중 담임목사)에서 상임고문, 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구 대표회장,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고 서울 성시화운동 확산과 2013서울국제성시화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논의한다. 이 모임에는 본부 전용태 공동총재와 김철영 사무총장도 참석한다.

한편 신수동성결교회는 92년 역사를 가진 교회로 예성교단에서는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한국교회 대표적 부흥사로 활동했던 이성봉 목사가 제13대 담임목사로 사역을 했고, 현 김영수 담임목사는 제20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성결포럼을 조직해 성경운동, 성령운동, 성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예성교단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신수동성결교회는 또 마포구 교회 연합 교육 및 전도훈련의 센터 역할을 해왔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_KICA)

태국지부 결성 및 한-태 문화교류 협약추진

태국을 방문 중인 김영진 W-KICA 상임대표(전 농림부장관)는 22-26일 방콕에서 태국 한인회(회장 채언기) 회장단과 태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명형식 목사)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일본, 호주 등에 이어 동아시아 중심거점인 태국 방콕에 W-KICA지부를 결성하는 것을 합의했다.

태국 교계에서는 협의회장 명형식 목사, 연합교회 김용식 목사 등 10여명이, 태국한인회에서는 채언기 한인회장장과 5명의 부회장단 정원과 한인회 김중형 사무총장,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영진 상임대표는 '지구촌 175개국 750만 우리 한인'은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민족의 자산이며 '축복'이라고 말하고 '우리 해외 동포의 법적지위 향상과 권익실현을 위해 일해 온 W-KICA가 동아시아의 거점 도시인 방콕에 지부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전 장관은 W-KICA창설 이후 그동안의 성과로 1)세계한인의 날 제정 2)32년간의 해외동포의 참정권 회복 3)민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고자 공동대표에 김영진(상임대표, 민주당), 황우여(공동대표, 새누리당 대표)등 여야가 함께 참여하였고, 종교를 초월하기 위해 상임고문에는 김삼환 목사(KNCC 전회장), 송월주 스님(전조계종 총무원장), 김수환 추기경(초대상임고문역임), 장상 목사(전 국무총리)등 각 종교 지도자들이 상임대표에 참여, 활동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후 추진 목표로는 ◆공관에서만 투표하는 참정권을 우편투표제 실시로 확대 추진 ◆장관 급 한인청의 설립으로 750만 해외동포의 권익 확대추진 ◆지구촌 해외한인 집중거주지에 한인센터 건립 추진으

로 민원센터, 사랑방, 한글학교, 문화센터 건립추진 등 한인의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언기 한인회장은 '우리 태국 3만여 한인들도 적극 이에 동참하고 비록 뒤늦었지만 W-KICA 방콕지부 개설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태국한인교회 연합회 명형식 회장도 '우리 태국거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주재원, 상사원과 가족, 유학생 등도 해외동포의 법적지위 향상, 해외 한인연합과의 일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더프르전트(대표 오형주), 아리랑TV와 태국의 국영TV9은 한국과 태국간의 문화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1월 초순 방콕에서 대규모 한류 스타들이 참여하는 '한국-태국문화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키로 하고 한국에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와 태국의 항공 사업가인 쿡 회장 등이 양국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영진 상임대표는 오형주 대표, 태국교계, 한인회 관계자와 올해 7월 초순 개관한 방콕 소재 한국문화원을 방문하고 '지구촌에 개설된 많은 한국문화원 중에서도 우리 한국문화의 살아 움직이고 약동하는 최첨단 시설과 훌륭한 구성과 여재, 오늘, 그리고 미래가 펼쳐진 감동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현장을 안내한 태국대사관 주재 한국문화원의 이준호 원장과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 격려했다.

김영진 상임대표는 방콕소재 한인연합교회에서 '한민족의 위상과 지구촌시대'라는 주제로 국회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신앙간증과 특별강연 등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는 본 신문방송 단체이며 취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원 및 개 교회, 농어촌 오지에 이르기까지 신청하시는 교회를 찾아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집회를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본 단체는 총재 이효은 목사를 중심으로 건전교단의 목회자들입니다. 벌써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언론부흥사협의회에 뜻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환영하며 부흥사로 같이 뛰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합니다.



총재
이효은 목사
(화정중교회)



대표회장
정기남 목사
(신원방송 대표이사)



부총재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부총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총재
정대성 목사
(강남북일교회)



부총재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전망)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동불교회)



강사단장
박수영 목사
(행복성교회)



상임회장
홍향표 목사
(한정총 사무총장)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벨렐교회)



상임회장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상임회장
김동기 목사
(백석대평성교회)



상임회장
최낙현 목사
(신성그리스도의교회)



자문
박양우 목사
(중부권지사장)



자문
이법성 목사
(한기법대표회장)



자문
허 식 목사
(한정총 직전 총회장)



자문
최순길 목사
(노설위원)



자문
서영웅 목사
(유리탄대학총장)



자문
박한규 목사
(수도권 은목교회)



실무회장
여 바를로 목사



실무회장
주은총 목사
(은총가도원전망)



실무회장
김창기 목사



실무회장
김영중 목사
(경남침사총장 역임)



공동회장
임요한 목사
(문화부 부장)



공동회장
정성준 목사
(벨렐교회)



공동회장
이기학 목사
(포항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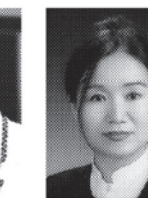
공동회장
김명옥 목사
(부흥사관학교 교장)



공동회장
전진성 목사



공동회장
강신숙 목사
(강신숙예술신학원)



공동회장
우술조 목사
(주성창강예인교회)



공동회장
임해숙 목사
(서울방주영교회)



공동회장
김부경 목사



공동회장(총무)
배정희 목사



회계
유은주 목사
(조에 교정선교회)

“복음상담실” 특강 (6)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상담] 저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하였고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교사로, 소그룹 인도자로 봉사하던 40대 남자 집사입니다. 그러나 서울로 이사 온 1년 전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좋으려도 교회에만 가면 몸이 굳어지며 어쩔 줄 몰라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던 어느 주일에 다음 주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듣는 순간 갑자기 부담이 되어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 하나님께 별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이나 다른 취미생활을 해보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적인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하면서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보다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얽매어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짚어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느 이익 단체와는 달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있는 공동체를 형성한 곳입니다. 각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 한 부분을 이루어 자신의 분야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답게 점차 변화되고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배워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지친 몸과 영혼이 힘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직분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려 더 이상 교회가 안식처가 아닌 부담스러운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적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배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십적

부담이 되었다면 목사님이나 교회 관계자들의 양해를 구하여 아무 직분도 맡지 말고 다시 교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조여 오는 그 구속감과 부담감이 무엇인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좀 더 성찰해 보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분들의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도와주기 바라는 분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신을 폐쇄시킨다고 하여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일시방편일 뿐 또 다른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혼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상적인 안식이나 취미생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되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멀리한다고 해서 마음에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의 배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의 꾀계가 있습니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집사님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집사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롬 5:8)을 매일 묵상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며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대제사장 예수님(히4:15)을 매일의 묵상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틈틈이 찬송가를 자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예수님의 평화가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평화가 집사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경혜 박사
영성신학원상담학교수



설교

효는 축복의 지름길 (본문 룿 1:15~17 찬송 350장)

오늘 본문에 엘리엘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성지를 버리고 이방나라 모압 땅으로 내려가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과 시험이 온다고 축복의 전당이며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 타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엘리엘렉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뜻은“떡집”이란 뜻인데, 성스러운 떡집,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교회 즉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나라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남편 엘리엘렉도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고,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와 룿만 남았습니다. 졸지에 모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천국백성이 잠시 받는 환난을 참지 못해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교회의 품을 떠나면 더 큰 환난과 고통을 만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1. 룿의 지극한 효성

룿은 가장 효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지극한 효성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1. 룿은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고부간에는 다 갈등이 있는 법인데 이 룿은 자기

의 고국산천을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공경했습니다.

2. 룿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남편이 있든 자식이 있든지 하며 그 때문에 효도하면 체면상 효도한다고 하겠으나 룿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죽고 없는데 홀시어머니를 외국까지 따라와 공경했으니 이보다 훌륭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3. 룿은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자식들 다 죽고 외국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재산이란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봉양하며 효도했습니다.

4. 룿은 외국인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 시어머니가 뭐 그리 탐탐해서 섬기겠소나? 5. 룿은 가난한 중에도 물질로 잘 봉양했습니다. 룿은 양식이 없어 밭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쪼어 음식을 만들어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효는 아름답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2. 효도가 왜 중요한가?

1.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

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엡:6~3)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명령했습니다.(잠 23:25)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효도는 인륜 계명의 첫째입니다. 십계명을 돌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킬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인륜 계명 중에 첫째가 제5계명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습니다. 3. 효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없다면 뒤죽박죽 혼돈한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부모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3. 효도와 축복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이 계명대로 살면 자손만대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룿은 효성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시다. 나중에 큰 부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부자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왕입니다. 그러니까 보잘 것 없는 이방인 한 과부가 선민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효아말로 복된 길이고, 효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엄청난 복을 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엡6:2~3)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효아말로 축복의 길입니다. 부모님을 주안에서 순종하므로 이 땅에서 잘 되며 장수의 복을 모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효은 목사
화정총회교회 담임
본지 언론부흥사업회 총재

칼럼

여름

여름은 팜의 계절이다. 여름은 팜 없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재(嶺)와 같다.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팜을 흘린 양을 기해해야 할 만큼 팜이 없이는 여름을 날 수 없기 때문이다. 팜은 체취(體臭)를 심하게 한다. 팜은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준다. 팜이 심하면 땀띠와 피부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해서 불편하다.

게다가 팜은 경제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여름철 팜과 싸우다보면 에어컨디셔너를 켜야만 한다. 20년 전만 해도 그것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선택사항으로 꽤 비싼 것이었다. 해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차에나 달려있었던 것이 에어컨디셔너였다. 한데 지금은 기본 사양이 됐고 일반 가정에도 설치가 돼 있다. 일단 집에 에어컨디셔너가 있으면 흐르는 땀 앞에서 키지 않을 수 없기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

요즘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한 뉴스가

많다.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다. 저녁 뉴스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러한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다. 팜은 체온 조절과 함께 노폐물 배출의 수단이다. 그러기에 팜을 흘려야 체내의 노폐물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무조건 팜을 흘리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니다. 팜을 적당히 흘려야 하는 것은 건강의 비결이니 말이다. 만일 화상을 입어서 팜구멍을 상실하게 되면 심할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팜을 흘려서 일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은 일이다.

한데 요즘은 일해서 팜을 흘리는 것보다는 찜질방에서 팜을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이 또한 비생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나 팜을 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찜질방에서 팜을 빼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다. 물

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쉬어야 하는 사람이 쉬면서 팜도 적당히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는가?

하지만 일을 하면서 팜을 흘리는 것과 그냥 찜질방에 앉아서 팜을 흘리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서 팜을 흘려야 하는 것 아닐지. 그렇게 본다면 찜질방에서 흘리는 팜은 수분만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팜을 흘릴 수 있을 때 적당히 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귀찮아하지만 말고 흘릴 수 있는 기회에 흘리는 것이 좋다. 어린 아이들이 뛰놀면서 흘리는 팜은 건강의 상징인 것도 이유가 있다. 그만큼 열심히 뛰고 팜을 흘리니 신진대사도 잘 되는 것이고, 피로 회복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팜을 흘리는 것 아니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팜의 배출 기능이 약해지고 팜 흘리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해서 점점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신체 기능의 세세한 데까지 배려하셨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럴수록 그 저 경이로운 지혜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팜을 흘리는 것이 귀찮고 때로는 불편해서 더위를 원망하고 팜을 귀찮아하지만, 그래도 팜을 흘리게 하심이 감사할 일 아닌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팜의 역할이 크니 팜을 흘리게 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게다가 팜은 사람들에게 보람을 안겨 준다. 자신이 팜을 흘린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인 대가까지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할 따름이 아니겠는가. 이 여름이 다가기 전에 흘릴 수 있는 팜은 흘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이종준 목사
인천 만수남교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충주 시골 명서교회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명서교회 영성수련원 김시립 담임목사 남경우 사모 명서리에 있는 폐교를 충주시로부터 임대하여 약 10년을 사용하던 중 충주시가 폐교를 사용하겠다고 교회를 철수 해달라고 당장 손에 가진 것은 없고 20여 명의 고령의 노인들을 모시고 갈 곳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소문을 듣고 200평의 땅을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허락해 주었지만 이사비용도 그곳에 컨테이너박스 두 동을 옮겨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옷 된장 40~50도가니를 건축현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옷 된장은 옷 나무를 3년 동안 발효시킨 것이며 된장은 2년 동안 숙성시켜서 옷 나무 원액과 된장이 만들어지는데 5년이 걸린다는 옷 된장입니다. 또한 인근 천도산에서 채취한 120가지 풀로 담고 발효시킨 효소원액이 수십 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웰빙옷된장, 120가지 풀로 만든 효소원액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법적인 저축을 받기 때문에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농촌교회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옷된장과 효소원액은 선교회 주신분한테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시립 목사, 남경우 사모, 부부가 농촌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영성수련원 원장 : 김시립 목사

연락처 : 043-851-9937-8 직통 : 010-6263-8959



대한민국 경찰, 미국경찰처럼 불법시위 엄단해야 아동 범죄 예방 위해 경찰, 기업과 손잡다

불법시위를 하면, 워싱턴 시장도 뒤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미국 경찰, 거리에 널려 있는 쫓불폭도, 불법시위 현장에 어슬렁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김한길 정청래 박영선.. 이정희 따위도 현장에서 쇠파를 채울 수 있을 때 法治와 秩序가 확립되고 치안을 확보 할 수 있다.

한국경찰이 미국경찰보다 [월급]이 적은개권한이 작은가... 대한민국의 경찰청장 강제시작을 당할 각오로 제대로 할 수는 없을가? 수사권 독립이 안 돼서 불법현장을 두 눈 뜨고 구경만 하는 것일까?

시청 앞 광장엔 가보면 경찰이 민주당 천막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어버이연합 어른들만이 민주당을 규탄하는 모임을 보고 불법이라며 강제 해산시키겠다고 방송과 함께 압박지



미국경찰, 워싱턴 시장도 수갑을 채워 체포

른다. 이거 우리 경찰 맞아요?

강성 논객]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 73조

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宣戰布告]

와 講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부 강성논객은 7차 개성공단정

상화회담에서 김정일의 [降服]을 받아 내지 못했다고 차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까지 시비를 걸고 나서는가 하면, 어디서 들은 [鑑別] 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술에서 이기고 전략에서 졌다"는 혹평을 하

기도 한다.

7차 회담 합의문은 개성공단정상화의 [必要充分條件]을 일방적인 우격다짐이 아닌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서면 계약 성격의 합의에 불과하다.

結果가 아니라 始作이며 結果가 아닌 過程이다.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과일 맛을 타는 것은 성급한 태도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비판이라기보다 [非難]이 될 수도 있다.

※ 누구를 막론하고 正義와 眞理를 독점하려 드는 것은 오만한 獨善이다.

대한민국 범죄집행과 사회정의는 이성만 경찰청장, 채동욱 검찰총장, 양승태 대법관 3인 손에 달렸다. 특히 빨간 페인트 통에 담겼던 망치로 간첩까지 봐 주는 赤色판사 [놈]들에게는 [石弓]도 아깝다.

경찰청(청장 이성환)은 지난 21일 아동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필라 코리아(주) 전국 로드 샵 400여개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신속발견을 위해 실종,유괴 경보발령 시스템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통영, 나주 등지에서 잇따라 여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안전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전국 10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신설, 성 폭력 및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증원 배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력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특히, 스스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데 상호 뜻을 같이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성환 경찰청장은, 글로벌 기업인 필라코리아(주)가 그동안 아동의 안전과 범죄 예방 등 수많은 공익적 활동에 이어, 보다 촘촘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로드 샵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필라코리아(주) 이기호 대표이사는 경찰청의 도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아동보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협력치안 강화 위해 필라 코리아(주) 로드 샵 아동 안전지킴이집 위촉(414개, 판매사원 수호천사) 및 실종,유괴 경보 발령 업무 협약을 했다.

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금번에 위촉한 필라 키즈 등 400여개 로드 샵을 비롯 전국 2만2천여개소의 아동안전 지킴이집과 2만15천여명의 아동안전수호천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우회,노인회 소속 회원 5,882명을 아동안

전지킴이로 선발, 전국 4,497개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등지에 배치, 하굣길 학생안전 확보하는 한편, 성,학교폭력,유괴,실종 등 아동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필라코리아(주)에서 실시하는 FILA kids SAFETY CAMPAIGN에도 참여, 어린이 안전교실에 참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괴,납치 등 예방교육은 물론, 사전등록 관련 업무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록도 한센병 환우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열어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초청강연 및 “드림싱어즈” 열린음악회 개최

국내의 500여회 이상의 공연으로 감동을 전한 드림싱어즈(단장 나윤규 교수)가 8월 21일 소록도를 방문하고, 한센병 환우들과 함께하는 ‘김영진 전 장관 초청강연 및 열린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강연에서 김영진 전 장관은 온갖 역경을 딛고 정치무대에 들어섰던 순간부터, 5선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역임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국회조찬기도회와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으며 펼쳤던 의회선교활동의 경험을 소록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삶과 신앙이 소록도 한센인 환우들과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서 나윤규 단장이 지휘한 ‘드림싱어즈’는 ‘그리운 금강산’(최영섭 교수), ‘경복궁타령’(이덕인 교수), ‘신아리랑’(김동진 교수) 등 가곡을 비롯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픔의 축복(김윤진 교수)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강무현 교수)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다.

특히 강무현 교수와 출연자 전체가 가요 ‘나쁜 고향’ ‘무인도’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을 열창하고, 무대와 객석이 하나돼 ‘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땀주인과 출연자 모두에게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됐다.

이번 드림싱어즈 열린음악회에는 소록도 주민들뿐 아니라

관내 5개 지역교회도 함께했다. 공연에 참여한 지역교회 연합 김선호 목사는 “드림싱어즈의 공연은 어려움을 겪은 소록도 주민과 교인들에게 격려가 됐고, 특히 신앙과 집념으로 농어민들을 위한 정지활동을 해온 김영진 전 장관의 강연은 용기를 주었다”며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소록도병원 박명철 원장도 “이번 공연과 강연은 그 어느해보다 무더운 여름으로 지쳐있던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주는 시간



김영진 장로

이 됐다”며 드림싱어즈와 김 전 장관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교연, 자살방지 생명사랑 밤길걷기 참가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목사)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질녘서 동을 때까지 생명사랑밤길걷기’ 대회에 참가했다.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사무총장 김춘규 장로와 임직원, 한교연 회원교단 예장 통합 안산구로문교회 중고등부 학생 등 30여 명은 지난 8월 23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가한 후 7시30분 서울시청을 출발해 남산순환도로와 국립극장, 장충공원을 거쳐 서울시청으로 돌아오는 10km를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한교연 참가자들은 특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단다” “소중한 생명이 아끼고 사랑하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청소년

들과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계도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 행사는 오는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한국생명의전화가 주최했다.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제9회기 출범

부흥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동역자를 모십니다



총재 이재갑 목사



대표회장 박영민 목사



고문 박동식 목사



고문 강문중 목사



고문 이철호 목사



부총재 이재원 목사



부총재 정기남 목사



부총재 하중우 목사



부총재 성창경 목사



연수원장 정기환 목사



자문 박길영 목사



사무총장 주은총 목사



감사단장 전진성 목사



사무차장 오세승 목사



사무차장 임요한 목사



예배국장 선명숙 목사



회의록사기 전미리 목사



회계 박종만 목사

회 이기학 목사, 데이비드길 목사, 박수영 목사, 김부경 목사, 윤순란 목사, 김봉남 목사, 주찬양 목사, 여바울 목사, 이재숙 목사, 김순애 목사, 원 안정일 전도사, 오선연 전도사, 부요한 전도사, 김창영 선교사, 박달수 선교사, 주영광 선교사.

공지

· 회원중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분이 6개월 이상 회비 미납과 장기 불출석하신분은 자동 탈퇴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 본 광고 회원 명단에 없는 분이 본 단체 예전 직함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신 분은 활동에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주소: 인천시 남구 춘의 1동 441-45 등불교회

전화: 032-891-0651 대표회장 박영민 목사: 010-2080-0651



■ 특집 맛 자랑 / 하늘애찬

영종도 동충하초 오리요리 전문, 하늘애찬 서명희 권사



대표 서명희 권사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영종도 대교를 지나 인천 시 중구 운남동을 들어서면 한번 가면 다시 찾는 소문난 맛집, 최고의 맛집이 있다. 그 유명한 보양식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 하늘애찬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입구에서부터 주변 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운치 있는 풍경과 정갈한 인테리어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게다가 깔끔한 음식솜씨와 미식가들의 환호와 찬사가 끊이지 않는 하늘애찬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사장 서명희 여사)이다.

영종도 최고의 소문난 맛집(www.하늘애찬.kr)을 찾아서

영종도 하늘애찬은 170여석을 갖추고 30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친절하고 서비스가 만점인 장동진 서명희 사장과 종사자들로, 찾아오신 손님들을 최고의 VIP로 모시고 있는 소문난 맛 집 하늘애찬...

사장 서명희 권사는 남편 장동진 성도와 함께 신앙이 돈독한 기독교인이다. 영종도 포도원교회(담임 박병철 목사)를 섬기고 있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서명희 권사의 신앙심이 참으로 돈독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시는 말씀마다 차분하면 서도 정리되어 있었으며, 정말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낌을 받았다.

◆ 영종도에 들어와 정착하며 식당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처음 이곳 영종도를 찾았을 때는 식당을 하겠다는 생각을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하고 있는 후배가 이곳을 소개했고 와보니 620평의 토지위에 120평의 창고가 있었는데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불빛하나 없는 적막하고 캄캄한데 업무가 나지 않았습니니다.

도저히 어떤 가망성도 없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 끝에 결론은 식당이었습니

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무슨 식당을 하느냐고 만류하는 지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120평되는 창고를 안과 밖을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식당 주변도 아름답게 조성하여 누구든지 한번 오면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 속에 아름답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애찬이란 상호를 걸고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을 오픈하여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식당은 한동안 잘 되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이제는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으로 엄정 난시련과 좌절감도 있었는 데?

식당을 오픈한 그해는 영업이 잘 되었는데 그 이듬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조류독감 확산과 광우병 파동으로 전국이 공포에 떨면서 식당들은 된 서리를 맞았고 줄줄이 폐업을 하는 등 힘들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니다.

◆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이 꾸준하게 소문이 난 비결은?

동충하초를 넣은 오리요리는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배우고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문이 났습니니다. 오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맛있게 영양가 높은 보양식이라며 인정을 해 주었고, 또한 맛있다는 소문이 구전을 통해서 또는 신문광고효과로 인해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주셨습니다. 동충하초 오리요리는 보양식으로서 특별한 노하우도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과 멋진 인테리어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식당주변에는 쉼터가 있고 운치 있는 경관을 만들었으며, 친절과 최선의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오리요리를 잡수어 보신 분들은 담백하면서도

맛이 좋다는 평가를 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 언제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고, 시댁어른께서 교회를 나가시는 그 모습이 참 좋아서 처음 교회를 따라 간 것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출석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니다. 당시 몸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은 제게 기도를 하게 만드셨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편도선까지 몸을 괴롭히는 때에 기도를 했는데 편도선이 간곳이 없었습니다. 몸도 가볍고 폐결핵도 치료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픔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해도 위에서만 일하게 하였고, 중직을 맡아서 일하게 하십니다. 얼마전에 예배소서 6: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

옵소서'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깨달아짐을 느끼게 되어 감사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불효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식당운영의 묘미는 친절하고 최선을 다한 서비스라고 했는데?

네, 신앙인으로서 하루의 시작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며, 식당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식당들을 두고 이곳까지 오신 손님들을 볼 때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변한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았고, 목사님을 찾았고, 무슨 일만 생겨도 목사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신앙이 변하여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사춘기를 겪었고 짜증도 내고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조금만 터치를 해도 눈물을 흘리는 등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권면도 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꿈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동충하초와 오리꼬는 보양식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요?

하늘애찬을 찾는 분들은 수준 높은 미식가입니다. 동충하초가 들어간 오리요리는 그 효능이 뛰어난



고 맛과 조화를 이룬 보양식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당뇨와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은 이로운 고기라고 합니다.

동충하초(冬蟲夏草)의 효능에 대해 전문가들의 책과 인터넷을 보니 '빈혈을 치료하고 탁월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허약한 사람이 꾸준히 복용할 때 도움이 되고, 또한 신체의 노화를 예방하고 혈압과 혈당을 정상적으로 이끌어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의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항균작용에 탁월하며 고혈압을 막아주고 신장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며 전식치료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감기나 폐결핵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오리꼬기의 효능을 보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

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쌓인 지방의 배출을 촉진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과 수치를 낮춘다고 했고, 또는 칼슘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고 아미노산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간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리는 영양성분이 고루 있어 항산화작용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피부세포노화를 늦춰 주고 체력을 길러 주며, 이 외에도 변비예방, 시력 증진, 다이어트, 산모나 태모를 막아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영종도 소문난 맛집 친절과 서비스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 아래 전화 문의.

자세한 것은 www.하늘애찬.kr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의 소문난 맛집 하늘애찬은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추천업소입니다.

파종전 목사 9월 국내·외 성회 일정

1(주) 오후 2(월) 오후 2(월)~ 4(수) 7(토) 오후 8(주) 오후 8(주) 저녁 9(월) 오전	대전 주안교회(전정호 목사) ☎ 010-6470-6117 서울 목회전문대학원(원장 조재자 박사) ☎ 070-8258-9807 의정부 열린문교회(김동훈 목사) ☎ 010-8874-5120 기도치유이카데미(이성진 목사, 총재 정호환 목사) 서울 한신교회(정병대 목사) ☎ 011-347-3390 서울 우리중앙교회(박영국 목사) ☎ 010-3683-1005 서울 중랑교회(엄선형 목사) ☎ 02476-7131 주최: 세계복음화부흥회의회(대표총재 강태원 목사, 대회장 박종철 목사) Henderson C University 강(한국 branch) 포항 브나니교회(원장 박인정 목사) ☎ 010-7612-7500 제179차 해외성회(179th Overseas Assembly) 미국(U.S.A) 인디애나주목회연합교회(김영수 목사) ☎ 317514-1327 미국(U.S.A) 펜실베이니아 클로벨리언신학교(Dr. Joseph Kim) ☎ 215782-11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9(월) 오후 9(월)~11(수) 13(금)~15(주) 16(월)~17(토) 18(수)~19(목) 23(월) 오전 23(월)~26(목) 27(금) 오후 27(금) 저녁 30(월) 오전	미국(U.S.A) 인디애나주목회연합교회(김영수 목사) ☎ 317514-1327 미국(U.S.A) 펜실베이니아 클로벨리언신학교(Dr. Joseph Kim) ☎ 215782-11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 267575-5617



영종도 하늘애찬

동충하초 오리요리 전문점



소문난 하늘애찬은 친절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하늘애찬.kr)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영종도 대교를 지나 인천 시 중구 운남동을 들어서면 한번 가면 다시 찾는 소문난 맛집, 최고의 맛 집이 있다. 그 유명한 보양식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 하늘애찬... 입구에서부터 주변경관이

운치 있는 풍경과 정갈한 인테리어로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게다가 깔끔한 음식솜씨는 미식가들의 환호와 찬사가 끊이지 않는 하늘애찬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사장 서명희 여사), 170여석을 갖추고 30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갖춘 최고의 VIP로 모시고 있는 소문난 맛집(www.하늘애찬.kr)입니다.

동충하초가 들어간 오리요리는 그 효능이 뛰어나고 맛과 조화를 이룬 보양식으로 소문이 나 있다. 당뇨와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은 이로운 고기라고 자부합니다. 동충하초(冬蟲夏草)의 효능에 대해 위의 기사내용을 꼭 한번 읽어 보세요.

대표 서명희 권사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348-11
전화: ☎ 032-752-5292 HP 010-5420-0153(사장 서명희)
사업자 등록번호: 121-18-32838 www.하늘애찬.kr



■ 찾아오시는 길

